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마티스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도, 첨단 전략산업 중심 기업유치 총력

정부 5극 3특 전략 등 연계
피지컬AI 실증밸리 구축
AI로봇 산업 클러스터 등
기업 투자환경 개선 위한
산업입지 확충과 병행
기업 투자결정 촉진 위한
인센티브도 대폭 강화



눈 피해 길 지나는 시민

쌀쌀한 겨울 날씨가 찾아온 24일,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서 시민들이 내리는 눈 사이로 길을 지나고 있다. (사진=뉴스시스 제공)

전북특별자치도가 피지컬AI·로봇·바이오·방산 등 첨단 전략산업 중심의 기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며 산업단지 대전환을 통한 '기업이 찾는 전북' 실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도 기업유치과 신현영 과장은 24일 도청 기자실 브리핑에서 "민선8기 출범 이후 기업유치 성과가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며 첨단산업 중심의 투자유치 전략과 산업단지 혁신 계획을 발표했다.

도에 따르면 민선 8기 출범 이후 전북은 252개 기업 1738.389억원 규모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과거 10년간 연평균 3조원 수준과 비교해 연평균 5조 규모로 크게 늘어난 수치다.

특히 1,000억원 이상 대규모 투자도 29건, 1333.199억원으로 민선 7기 대비 금액 기준 100% 이상 증가했으며, 건당 평균 투자액 역시 4.593억원으로 상승해 양적 성장과 질적 도약을 동시에 이뤘다는 평가다.

산업구조 역시 전통 제조업에서 첨단 산업 중심으로 재편됐다. 민선 6기 식료품 민선 7기 전기·전자 중심에서 벗어나 민선 8기에는 이차전지 투자 10조원(56.3%)이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고, 바이오·화학소재가 뒤를 잇고 있다.

또 삼성·포스코·IS·두산 계열 등 대기업 7개사를 유치해 434.017억원 투자를 확보하며 전북의 투자 거점 위상도 강화했다.

전북도는 정부의 5극 3특 성장엔진 전략과 민간 대기업의 대규모 지방 투자 계획을 연계해 2026년 첨단산업 투자유치를 확대할 방침이다.

주요 전략은 △피지컬AI 실증밸리 구축 △AI로봇 산업 클러스터 조성 △바이오 액티비티 기업 유치 △방산혁신클러스터 지정 등이다.

특히 피지컬AI 분야는 1조원 규모 실증밸리를 기반으로 실증-제조 연계 생태계를 구축하고, 로봇 분야는 농업·건설·푸드테크·물류 등 4대 분야 핵심기업 유치에 집중한다. 바이오는 1.534억원 규모 펀드를 활용해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하며, 방산은 복합소재 기반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협력업체 동반 입주를 유도할 계획이다.

기업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산업입지 확충도 병행된다. 전북도는 익산 제3 확장 김제 지평선2, 전주 탄소 국가산단, 새만금 국가산단 등 총 5개 산단(8.13km) 조성을 추진하고, 신규 예정지 6곳에 대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원주 수소특화 국가산단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수소모빌리티 중심 거점으로 조성될 전망이다.

새만금산단에는 중소·벤처기업 입주 지원을 위한 기업성장센터 건립도 추진돼 약 70개 기업이 입주 가능한 공간이 마련된다.

노후 산업단지는 구조고도화·스마트그린산단 사업을 통해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산업공간으로 재편된다. 군

산·전주 산단에는 통합관제센터, 스마트 물류·에너지 플랫폼,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등이 진행되며 AI 기반 제조혁신을 위한 AX 실증산단 공모도 추진된다.

기업 투자결정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대폭 강화된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기존 1·2·5·6공구에서 3·7·8공구까지 확대될 예정)이며, 지정 기업에는 법인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이 제공된다. 기회발전특구 역시 전주·익산·정읍·김제·남원 등 5개 시를 중심으로 확대 지정돼 보조금·세제 지원이 강화된다.

또 조례 개정을 통해 연구소·ICT·R&D 기업의 투자보조금 신청 기준을 3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해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전북도는 새만금 한·중 산업협력단지를 중심으로 해외 기업유치도 확대한다. 한·중 산업단지 협력강화 MOU 체결을 계기로 투자시찰단 교류와 공동 투자유치 행사를 추진해 글로벌 협력 기반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유치기업 전담관리제 운영과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 애로 해소와 인력 공급을 지원하며 투자협약이 실제 가동과 일치해 창출로 이어지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오만호 기자

김제 공덕 산란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H5N1 확진

전북특별자치도는 김제시 공덕면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검출된 H5형 항원이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로 최종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례는 올해 겨울 도내 네번째 고병원성 AI로 전국적으로는 48번째 확진 사례다.

해당 농장에서는 H5형 항원이 확인된 직후 초동대응팀이 즉시 투입돼 농장 출입이 통제되고 역학조사가 진행됐다. 현재 사육 중이던 산란계 6만1,000수에 대해서는 살처분이 이뤄지고 있다.

도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km를 방역지역으로 설정하고 이 지역 내 가금농장 49곳을 대상으로 이동 제한과 함께 정밀검사와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방역지역에는 전용 소독차량을 배치해 농장 진출입로와 주요 통행로에 대한 소독도 강화했다.

이와 함께 방역지역 외 철새도래지와 수변지역, 가금 밀집단지 등 고위험 지역에는 소독차량 68대를 투입해 하루 두 차례 이상 집중 소독을 이어가고 있다. /오만호 기자

'전북, K-컬처 메카'

민주 이원택 의원, "문화 선도 최적지"

K-스토리 콤플렉스 조성 등 정책 제시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 출마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은 24일 "전북이 가진 관소리와 전통문화, 이야기 자산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K-컬처를 주도하는 문화산업 거점으로 도약하겠다"며 K-컬처 메카 전북 정책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전북은 K-컬처의 원천 자산인 전통문화가 탄탄한 지역으로 미래문화를 주도할 잠재력과 창작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며 "대한민국 문화를 선도할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곳"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관소리와 전통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한 실감형 K-Story 콤플렉스(콘텐츠 생산기지) 조성을 추진한다.

이 공간에는 전통 이야기 자산을 활용한 실감콘텐츠 전시관을 비롯해 교육·체험·창작 기능이 결합된 복합 문화시설이 들어선다.

또한 K-컬처의 국제적 확산을 위해 전략적 문화 ODA(문화교류협력사업)를 추진하고, 문화기술 연구를 위한 K-아트테크랩(콘텐츠 창작 실험실)을 설치해 문화기술 융합을 통한 문화 4차 산업의 기반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세계 OTT 시장을 겨냥한 K-스토리 시나리오 스텝을 양성하고 전북 문화 IP(지적 재산권)의 세계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복·한지·한식·전통공예 등을 아우르는 K-스타일 브랜드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면서 글로벌화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전북을 국가 문화정책과 예술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지역문화진흥원, 국립발레단 등 국가 문화예술기관 이전 유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전북 지역의 설화·민속·전통예술 등 이야기 원천 자산을 국가적 기초 예술콘텐츠로 발굴·육성하고 전북 내 대학 출신이거나 5년 이상 지역에서 활동한 예술인에 대해 30% 채용 의무제를 도입해 지역 예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구상이다.

문화기업 100개 육성과 문화산업 생태계 구축과 관련, 전북의 문화예술을 지원 대상을 넘어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로 전환한다.

전통문화예술과 8대 기초예술, 예술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연 매출 10억원 이상 사회적경제조직 70개 이상을 육성하고 문화예술 특화 스타트업에 집중 지원해 연 매출 50억원 이상 문화기업 30개 이상을 배출한다는 목표다.

기초예술 종합지원센터 조성은 지속 가능한 창작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반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공연 세트 제작·의상·소품 제작 및 보관, 시각예술 대형 작품 공동 작업실, 개인 작품 수장고 등을 갖춘 기초예술 종합지원단지를 조성해 창작·제작·유통·홍보·마케팅을 아우르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예술인의 창작 안전망을 보장하기 위해 예술인 창작기본소득 지급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이를 통해 예술인의 생계 불안을 완화하고 장기적·실질적 창작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전북을 예술인이 떠나지 않는 지역이 아닌 머물러 성장하는 예술가 정주 도시로 전환하고 전북 문화 IP(지적 재산권)의 세계 진출을 지원할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K-컬처는 일회성 유행이 아니라 지역의 이야기와 예술, 사람이 축적돼 만들어지는 국가 경쟁력"이라며 "전북이 가진 전통문화와 예술창작 역량을 바탕으로 문화로 성장하고 문화로 일자리가 생기자 문화로 세계와 연결되는 전북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권희성 기자

내 고향 장수군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

장수군을 사랑하는 마음 '고향사랑기부제'로 전하세요!

장수사랑상품권

장수 한우

꺼먹दै지 세트

장수 사과

오미자

오미자주

등 20여개 품목

문의: 장수군 행정지원과 063-350-2009, 2140

고향사랑 기부제란?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제 혜택과 함께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 받고,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지 등에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기부한도액 연간 2,000만원

기부혜택 10만원 기부하면 13만원을 돌려드립니다. 세액공제 10만원+답례품 3만원

혜택 1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 10만원 이하 소득세에서 전액 세액 공제
 ·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44% 세액공제
 · 20만원 초과 분은 16.5% 세액공제

혜택 2 지역특산품 등 고향의 마음을 담은 답례품
기부액의 30% 범위 내로 최고 600만원까지

온라인 기부
고향사랑e음
(ilovegohyang.go.kr)

오프라인 기부
전국 농협은행
(농·축협포함)